



## 통역과 번역 제17권 3호

ISSN : 1229-6074(Print)

# 국제부 기자의 TV 생방송 영한 동시통역

이태형

To cite this article : 이태형 (2015) 국제부 기자의 TV 생방송 영한 동시통역, 통역과 번역, 17:3, 139-162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http://www.earticle.net)

통역과 번역, 17(3), 2015

## 국제부 기자의 TV 생방송 영한 동시통역

이 태 형

(한양대학교)

Lee, Taehyung. (2015). English into Korean live simultaneous interpretation on TV by a journalist.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17(3), 139-162.

As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s widely utilized on TV, it is not rare in Korea to witness non-professional interpreters are challenging this highly complicated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This article examined an English into Korea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by a non-professional interpreter to cover UN Secretary General Ban Ki Moon's speech on March 24, 2014. The interpreter who was a journalist working for a Korean TV station also tried to simultaneously interpret CNN's breaking news at a TV studio and ended up a total failure last year. Although she did not sit at a TV studio this time, the reporter omitted a significant amount of the original speech leaving exceptionally long pauses, EVS and TTS in her interpretation. Particularly, the portion of concurrent listening and speaking which makes simultaneous interpretation very demanding was extremely low. As a result, the performance was nothing more than a poor random consecutive interpretation as the reporter produced one Korean sentence while paying no attention to the concurrently incoming messages and listened to the next segments without any utterance leaving long pauses. In spite of some assertions that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ability is a natural consequence of bilingualism, this case clearly attests that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t least from English into Korean, should be carried out by professional interpreters who acquired the ability to optimally allocate a limited capacity to several submodules of interpretation after a long and systematic training.

**Keywords:** simultaneous interpretation, live coverage, media interpreting, non-professional interpreter, temporal variables

## I. 들어가는 말

국내에서 걸프전 CNN TV 뉴스가 영한 동시통역을 통하여 생방송이 되면서 동시통역 붐을 일으켰던 것이 1991년이였다. 이후 많은 사람이 동시통역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에 이어 수많은 통번역대학원이 설립되며 동시통역이 중요한 소통의 도구로 자리를 굳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동시통역과 순차통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 둘을 혼용하는 용어의 혼란이 생겨났는데 외국인인 택시를 이용할 때 전화로 통역사를 호출해 목적지나 요금 등에 대해 외국인, 운전자, 통역자가 통화하는 서비스를 동시통역으로 표기한 신문 기사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의 혼란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식 통역 교육을 받지 않은 비전문가들이 동시통역에 도전하는 일이다. 1991년 걸프전 때의 비전문가들이 동시통역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이후 유사한 사건이 여러 차례 재발하였으며, 최근에는 2013년 7월 비전문가에 의한 아시아나기 사고 동시통역 건(이태형, 2014)으로 이어졌다. 이 중에서 특히 우려할만한 사안은 2013년 12월 모 방송사가 월드컵 축구 조 추첨을 생중계하면서 포르투갈어 전공 학부생에게 동시통역을 시킨 일이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은 “미숙한 진행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평가 외에 “실수로 웃음을 자아냈다”거나 “귀여운 실수로 시청자들 큰 웃음” 등으로 포장하였다. 이것은 현재 우리 사회의 동시통역에 대한 무지나 방송사의 무신경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문가에 의한 TV 동시통역은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외국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1991년 우리나라에서 걸프전 중계방송의 영한 동시통역 시 초기 비전문가들이 투입되었다가 실패한 사건과 매우 유사하게 드리커(Diriker, 2003: 214)도 1991년 걸프전 동시통역이 터키에서 동시통역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개하면서 걸프전 발발 초기에 TV 생방송 동시통역을 아나운서들이 맡아 수 분간 침묵을 지키는 등 수준 이하의 통역을 하다가 전문 통역사들이 투입된 후 정상적인 동시통역이 가능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야스켈라이넨(Jääskeläinen, 2003: 322)도 핀란드에서 기자들이 미숙한 자막 작업과 통역을 하는 사례를 보고하고 있으며 맥(Mack, 2002: 207)도 방송 동시통역의 경우 통역사는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변환시켜주는 기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비전문가들이 통역사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 차이로(Chiaro, 2002: 216)는 이탈리아 TV에서 CNN 방송을 동시통역 하는 기자들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국제화와 링구아 프랑카로서의 영어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낮은 품질의 비전문가 통역이 방송에서 점점 많아질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본 논문에서는 지난 2014년 3월 24일 제4차 핵 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영어 연설을 국내 모 TV 방송사가 영한 동시통역으로 생중계한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영한 동시통역을 맡은 비전문가 통역사인 기자가 2013년 아시안기 사고 동시통역을 맡은 그 기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점이다(이태형, 2014).

동일한 기자에 의한 두 번째 동시통역 자료를 또 분석해보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13년 동시통역은 통역자가 스튜디오에 출연한 상태로 이루어진 관계로 자신의 목소리와 영어 원문의 입력이 겹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앵커와 대화를 나누는 상태이어서 통역자의 정보처리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분석하는 2014년 동시통역의 경우는 해당 국제부 기자가 스튜디오에 있지 않고 독립된 공간에서 동시통역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스튜디오 생방송 동시통역이라는 비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전문통역사의 작업 환경에 가까운 상황에 놓인 이 기자가 전문 통역사들 수준의 원활한 동시통역을 한다면 2013년 동시통역 실패는 열악한 통역 환경에 의한 문제였고 비전문가들도 외국어 능력만 있으면 동시통역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만약 이번에도 드리커가 보고한 것처럼 낮은 수준의 동시통역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동시통역이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가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도의 작업이라는 주장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2013년 통역의 경우 CNN 앵커와 출연자 간에 이루어진 보도 형태라 자주 연사가 바뀌는 것을 통역자 혼자 통역한 특이한 상황으로 실제 통역 현장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었지만, 2014년에는 한 명의 연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연설하였으므로 통역자 혼자 여러 명의 연사를 통역하는 어려움은 없었다. 끝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통역 비전문가인 이중언어 사용자들에 의한 동시통역 연구는

전문 통역사들의 통역과 비교를 위해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고 전술한 것처럼 비전문가인 방송 출연자들에 의한 동시통역 사례는 많이 보고되었지만, 실제 이들의 동시통역 자료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연구는 필요하다고 보겠다. 특히 TV 동시통역이 최근 그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통역학 분야에서도 연구의 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는 시점에서(뵈히하커(Pöchhacker), 2011: 21에서 인용), 비전문가가 동시통역을 수행할 때 훈련받은 전문 통역사와 유사한 정보처리를 보이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상이한지를 탐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크리스토펠(Christoffels), 2004: 28에서 인용).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전문가 동시통역에 대한 기존의 문헌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이 두 동시통역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원문들의 시간적 양상과 통역사 변수들을 분석한 후 이를 전문통역사들의 정보처리 과정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 II. 비전문가 동시통역과 방송 동시통역

모저-머서, 프라운펠더, 커사도와 쿤즐리(Moser-Mercer, Frauenfelder, Casado & Kunzli, 2000: 108)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초보통역사는 통역 분야에 특별한 경험이 없는 자를 일컫는 것이며 전문 통역사는 다년간의 경험으로 상당한 전문성을 획득한 통역사를 말하며 학위를 받고 통역교육기관을 졸업하는 예비통역사들도 전문가로 불릴 수 있지만 완전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현장 통역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대상 기자는 인터넷에서 이름과 소속 방송사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학부에서 영어를 전공하였지만, 정규 통역교육기관에서 동시통역 훈련을 받은 기록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초보통역사보다는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이중언어 사용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동시통역이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인지 아니면 이중언어 사용자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처리 과정인지에 대한 논쟁에 있어 번역이나 통역이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이중언어 사용자들에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능력이라는 주장을 펴는 대표적 학자는 딜린저(Dillingier, 1994: 185)이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학자들로 번역과 관련해서는 해리스와 셔우드(Harris & Sherwood, 1978: 155), 통역에 관해서는 롱글리(Longley, 1978: 47)를 인용하고 있다. 해리스와 셔우드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번역의 경우 외국어 능력에 따라 이중언어 사용자들이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번역은 일상생활에서 평이한 문장들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으로 문학, 기술 등 전문 번역과는 구별되는 것인바 이중언어 사용자가 전문 번역 작업에 뛰어드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음으로 통역에 관한 롱글리의 주장을 인용한 부분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 논문에서 롱글리는 1975년부터 Polytechnic of Central London 대학에서 거버(David Gerver), 램버트(Sylvie Lambert)등과 함께 전문통역사 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한 경험을 기술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롱글리는 언어능력이 뛰어난 잠재적인 통역사 지망생을 선발하여 체계적인 훈련과정을 거치게 하면서 동시통역의 경우 듣기와 말하기를 한꺼번에 하는 훈련에 집중하였고 강조하고 있다(1978: 52). 그런데 동시통역 이론의 선구자들과 함께 훈련 과정을 운영하면서 선발 시험의 중요성과 과학적인 훈련을 강조한 롱글리가 통역이 이중언어 사용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은 믿기 힘든 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딜린저가 인용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롱글리는 해당 논문에서 “그 어떤 특별 훈련도 필요하지 않으며 타고난 기술과 한 두 개의 외국어 능력에 모두 좌우된다고 보았다(1978: 47)”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만 보면 롱글리가 딜린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의 문장 앞에 롱글리는 “-라면 몰라도 (we might be excused if)”라는 구절을 붙여두었다. 따라서 딜린저는 롱글리의 주장의 일부분을 잘못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딜린저(1994: 185)는 통역에서의 청해 과정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기존의 능력이 특이한 상황에서 발현되는 것이며 이것은 듣기의 구성요소와 동일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 근거로 그는 8년 반 경력의 전문 통역사들이 이중언어 사용자보다 17%밖에 더 정확하게 동시통역 하지 못한 것을 예로 들면서 동시통역 훈련 자체의 의미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도 17%의 차이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딜린저는 전문 통역사와 초보 통역사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결론 내리기는 무리가 있다고 밝히면서 전문 통역사들은 초보 통역사들과 발화 단계에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발화를 제외하고 원문의 입력에서 이해로 이어지는 단계에만 국한하더라도 전문 통역사와 일반 이중언어 사용자들이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은 동시통역 이론 측면에서 논란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본 논문의 주요 탐구 과제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하여 야스켈라리넨(2010: 214)은 실험 환경에서 이중언어 사용자가 전문 통번역사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인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전문 통번역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인위적인 실험 방식이 외국어 학습자들보다 전문 통번역사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에릭슨(Ericsson, 2010: 251)도 동시통역이라는 특유의 정보처리에 익숙한 전문 통역사는 약간의 수정이 이루어진 형태의 실험에서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실험들의 설계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또 모저-머서 외 3명(2000: 126)도 전문 통역사와 초보 통역사들을 대상으로 새도잉, 읽기, 그리고 유창성 등 세 가지를 실험한 결과 읽기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상황에서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하면서도 피험자의 수가 적은 관계로 이 결론을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들과는 반대로 시그노렐리(Signorelli, 2011: 208)는 통역사들이 이중언어 사용자들보다 수행기억에 있어 우위에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코케(Köpke, 2011: 195)도 초보 통역사들이 전문 통역사보다 수행기억에 더 의존하는 반면에 전문 통역사들은 항목 간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찾는 능력을 개발하였다고 보고하면서 실무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크리스토펠, 데 그루트와 크롤(Christoffels, De Groot & Kroll, 2006: 342)도 학생이나 교사들 보다 전문통역사의 기억이 더 좋았다고 보고하였다. 쿠르츠(Kurz, 2003: 59)는 전문가들은 초보자들이 놓치는 입력정보의 의미 있는 특성을 잡아내며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며 특정 과업에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하여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색이 자동화되고 능숙하다고 전문 통역사들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이어 그는 전문 통역사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충분한 전문성을 쌓아왔기 때문에 보다 큰 단위로 정보를 처리하면

서 신속하게 자동화된 전략을 구사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에릭슨(2010: 257)도 동시통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통역사의 능력은 수년간의 수천 시간에 이르는 훈련을 통한 능력 향상의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유드, 마시조와 바호(Yudes, Macizo & Bajo, 2012: 337)도 듣기와 말하기의 다중처리를 전문 통역사들이 수행하는데 동시통역 경험이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모서-머서(Moser-Mercer, 2010: 282)는 나아가 이러한 훈련의 결과 전문통역사들의 경우 정보처리 과정의 변화가 두뇌의 기능적 및 구조적 변화까지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리우(Liu, 2001: 8)가 주장한 것처럼 전문 통역사는 여러 가지 정보처리 과정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가운데 중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수행기억을 각각의 과업에 효율적으로 분배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것이며 이러한 수행기억의 효율적 관리의 중요성은 크리스토펠(2004: 29)도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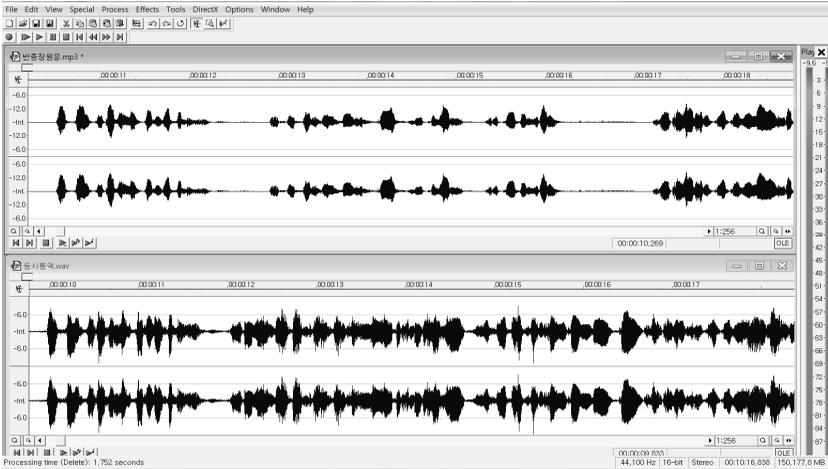
이처럼 정보 처리상 전문통역사보다 능력이 약한 비전문가가 TV 생방송 동시통역을 할 경우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피희하커(2011: 23)가 주장한 것처럼 방송 동시통역 자체가 시청자 수가 일반 국제회의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고 준비시간이 거의 주어지지 않는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쿠르츠(1990: 169)도 TV 생방송 동시통역은 일반 국제회의장에서의 통역보다 부가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작업이라고 하였으며 맥(2001: 128)도 생방송 동시통역이 일반 동시통역보다 더 복잡하고 인위적인 환경임을 지적하면서 통역사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어려움의 예로 시청자들이 짧은 EVS와 아나운서에 버금가는 목소리, 그리고 원문과의 일치 등을 기대하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력이 많은 전문 통역사도 생방송 동시통역에는 선뜻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곽(Kwak), 2007: 18).

### III. 분석과정과 결과

#### 1. 자료 분석 과정

국제부 기자의 한국어 동시통역은 하드디스크가 장착된 TV를 사용하여

실시간 녹화한 후 음성 신호를 컴퓨터에 저장하여 음성분석 프로그램으로 시간적 변수를 살펴보았다. 이처럼 실험실 자료가 아닌 진본 동시통역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최희하커, 2011: 24). 특히 최근에는 생방송 당시 동시통역 자료를 획득하지 못했더라도 유튜브에 업로드된 자료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져 자료 확보 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보겠다. 본 논문에서도 영어 원문은 인터넷의 유튜브를 검색하여 해당 동영상을 찾아 다운로드 받은 후 곰녹음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어 음성 신호를 컴퓨터에 녹음하였다. 원문 영어 스크립트는 UN 홈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후 녹음한 영어 원문과 대조한 후 수정을 거쳐 사용하였다. 한국어 동시통역은 모두 진사하여 영어 원문과 병렬 스크립트를 만들고 영어 원문과 한국어 동시통역을 음성분석 소프트웨어(Sound Forge 5.0)로 불러내어 <그림 1>과 같이 시간적 변수를 측정하였다.



<그림 1> 음성 파일 분석 화면

<그림 1>에서 화면 상단은 반 총장의 영어 연설 원문 음성 파일이며 하단은 이것을 동시통역 한 파일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가 겹쳐있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100분의 1초까지 휴지를 포함한 시간적 변수를 측정할

[Provider: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23 PM

수 있다. 이처럼 두 음성 파일을 병렬로 배치하면 상단과 하단의 파일을 대조하면서 원문과 통역의 휴지나 EVS 등을 측정하는데 용이하다. 그리고 음성파일을 필요할 때마다 들어보며 분석할 수 있어 영어 원문과 통역사의 음성학적 특성을 분석할 수도 있다. 이 과정을 거쳐 완성된 원문과 동시통역의 병렬 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다.

[분석 자료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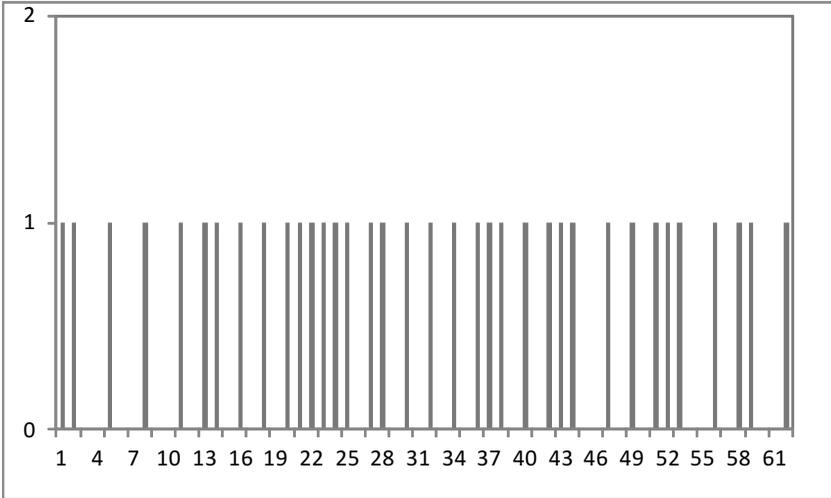
1. [1.01] I thank the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0.62] for hosting this third Nuclear Security Summit. [길이 5.7]  
(EVS 15.8) 네덜란드 마크 루토 총리께 감사드리며, [0.64] 각국 정상들과 [1.3] 의장국께 감사드립니다. [길이 7.5] (TTS 3.7)
2. [1.0] Nuclear security remains a pressing concern, [0.45] not least the risk of nuclear terrorism. [길이 5.7]  
(EVS 10.5) [7.63] 핵 테러와 핵물질은 아주 심각한 [4.59] 걱정거리이며 [길이 8.6] (TTS 13.3)
3. [0.8] The primary responsibility [0.46] for preventing non-state actors [1.17] and terrorists [0.4] from acquiring the most devastating weapons [0.38] known to humanity [0.42] lies with national governments. [길이 13.7]
4. [0.9] But international cooperation [0.4] and assistance are indispensable. [길이 4.3]
5. [0.9] Important challenges [0.29] include strengthening nuclear security implementation [0.64] and [0.27] building a culture of nuclear security. [길이 7.7]  
(EVS 8.7) [16.4] 어, 핵 안보 문화를 건설하는 것과 [0.36] 핵물질에 대한 [2.55]안보를 강화하는 것은 [2.87]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길이 14.4] (TTS 15.5)

## 2. 자료 분석 결과

### 1) 전체 자료 분석

600초 길이의 반 총장 연설에 포함된 영어 원문의 수는 총 62개였으며 그 중에서 38개가 한국어로 동시통역된 것으로 나타나 문장 통역률이 61%로 2013년 통역의 문장 통역률 32%보다 높아 일단 스튜디오에서 동시통역한 것보다 문장은 더 많이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9%의 원문이 동시통역에서 생략되었다는 것은 전문통역사들의 통역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높은 생략이라 하겠다. 그리고 통역된 문장들 중에서도 미완성이 6개나 발견되어 반드시 문장을 완결하는 전문통역사의 정보처리와는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으며, 미완성 문장들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목소리에 자신이 없는 행태를 보였다.

이 같은 동시통역의 진행을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통역된 원문은 1, 생략된 원문은 0으로 표기하여 다음 <그림 2>로 표시하였다. <그림 2>를 살펴보면 통역자는 1번과 2번 원문을 통역한 후 3, 4번을 생략하고 5번을 통역하고 있다. 이는 이 연구 대상자가 스튜디오 출연 상황이 아님에도 한 문장을 통역하면서 듣기를 중지하고 다시 다음 문장을 들으며 발화를 중지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한 문장의 통역과 뒤이은 원문들의 반복된 생략은 선내리((Sunnari), 1995: 109)가 지적한 초보 통역사의 행태와 유사하다. 방송 동시통역의 경우 시청자들의 기대치가 높음을 볼 때 통역사가 이렇게 긴 휴지 남기는 것은 치명적이다. 특히 이렇게 통역사가 긴 휴지를 남기는 동안에는 한국어 통역이 아닌 영어 원문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양상은 드리커(2003: 234)가 지적한 것처럼 비전문가들이 방송 동시통역을 할 때 전형적으로 보이는 긴 휴지와 비문의 사용 등과 일치한다.



<그림 2> 문장별 통역

음절 변수를 살펴보기 위해 음절을 계산한 결과 사전에 쓰인 연결문인 관계로 영어 단어당 음절수가 1.82로 높게 나타났다. 원문에는 총 1,937음절이 포함되어 있었고 통역된 한국어 음절수는 1,105로 나타나 통역은 원문 대비 음절 비가 57%로 계산되었다. 이는 이태형(2014) 연구의 72%보다 음절 비는 더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음절을 기준으로 상이한 두 언어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체르노브(2004: 114)는 다른 언어 간 음절 단위 비교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역사나 연사가 말하는 데 소비한 시간과 휴지의 비율을 지칭하는 발화율을 살펴보면 전체 600초 중 연사는 총 432초를 발화하는 데 사용하여 전체 발화율이 72%인 반면 통역사는 235초를 발화하여 39.1%의 전체 발화율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전체 통역 중 60.9%를 휴지로 남겼다는 것으로 시청자들에게 이 긴 시간 동안 동시통역이 아니라 영어 원문이 그대로 전달되었다.

## 2) 원문 변수들 비교 분석

동일한 기자가 2013년과 2014년 두 번 동시통역 한 상황이므로 통역사 변수가 고정되어 있다고 볼 때 원문의 시간적 변수의 차이가 통역 과정과 결과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원문 변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3년 통역의 원문과 2014년의 원문의 변수들을 t-test 하였다.

<표 1> 2013년과 2014년 영어 원문 자료 비교

	2013년 원문	2014년 원문	t	p
문장당 음절 수	21	31	-4.58	0.000
문장당 시간	4.6	8.5	-6.96	0.000
문장 내 휴지	0.46	1.56	-9.64	0.000
문장 간 휴지	0.46	1.2	-7.21	0.000
분당 음절 수	313	244	3.42	0.001
문장 발화율	0.93	0.84	6.12	0.000

<표 1>을 살펴보면 2014년 자료의 문장당 음절수가 2013년 자료보다 50% 가량 늘어나 문장당 31음절에 달하였다. 이런 결과는 2013년 원문의 영어 한 단어가 평균 1.5음절임에 비해 본 연구 자료의 경우 평균 1.82 음절을 보여 더 길고 어려운 단어가 사용되면서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독성(Flesh-Kincaid Grade Level)을 살펴본 결과 2013년 자료의 이독성이 샘플 1에서 6.0, 샘플 2에서 7.2, 샘플 3에서 7.2를 보였으나 2014년 자료의 이독성은 13.2를 보여 이번 자료의 문장 난이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단어가 늘어남에 따라 문장당 시간도 약 85%가량 늘어났다. 이러한 경향은 본 논문의 자료가 사전에 쓰인 연설문을 낭독하는 형태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절이 50% 늘어났는데 시간이 85%나 늘어난 것은 속도 등의 시간적 변수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2014년 원문은 문장 내 휴지가 1.56초로 2014 자료 0.46보다 3배 이상 길어졌으며 문장 간 휴지도 1.2초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다음으로 분당 속도에 있어서도 2014년 자료는 244 SPM으로 313 SPM 이던 2013년 자료에 비해 20% 이상 속도가 낮아졌다. 통역사의 정보처리 과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발화율에 있어서도 2014년 자료가 10% 이상 내려간 0.84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문장이 길어진 관계로 이독성이 높아져 통역상 어려움을 가져온 것을 제외하면 문장 내, 문장 간 휴지가 유의하게 길어졌고 분당 음절수로 표기된 속도도 내려갔으며 발화율도 낮아져 시간적 변수에 있어서는 2014년 영어 원문이 2013년 원문보다 통역하기에 용이했음을 알 수 있다.

3) 통역 변수들 비교분석

2013년 통역과 2014년 통역의 변수들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표 2> 2013년과 2014년 통역 변수들 비교

	2013년 통역	2014년 통역	2013년 통역/원문비	2014년 통역/원문비
문장당 음절 수	41.9	29.0	2.3	0.93
문장당 시간(초)	8.75	9.6	1.89	1.25
문장 내 휴지(초)	1.34	3.4	2.91	2.1
문장 간 휴지(초)	7.42	6.3	16.1	5.3
문장당 분당 음절 수	327	205	1.2	0.88
문장당 발화율	0.90	0.70	0.97	0.84
EVS(초)	7.62	7.64	해당 없음	해당 없음
EVS/문장	1.58	1.09	해당 없음	해당 없음
TTS(초)	9.3	10.1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표 2>에서 두 자료를 비교해보면 2014년의 통역의 문장당 음절 수, 시간, 문장 내 휴지, 문장 간 휴지가 2013년보다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14년 통역에서 원문 문장 중 61%를 통역하여 2013년의 32%보다 높아진 것이 주된 이유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문장 간 휴지가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통역자는 연사보다 5.3배나 길게 휴지를 남겨 한 문장을 통역하기 전에 매우 오래 기다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문장 간 휴지가 길어진다는 것은 통역자가 입력되는 원문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과 이해와 발화를 한꺼번에 수행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현상은 EVS 변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2014년에도 7.64초로 2013년의 7.62초와 매우 유사한 수치를 보여 전문통역사에 의한 영한 동시통역의 3초 정도의 EVS (이태형, 2009: 170)보다는 상당히 긴 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티시(Tissi, 2000: 115)는 초보 통역사들이 휴지를 많이 남기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이해 과정이나 발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다. 추, 에슬라미, 첸과 바이드(Tzou, Eslami, Chen & Vaid,

[Provider: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23 PM

2011: 224)등도 학생 통역사와 이중언어 사용자들의 동시통역 결과를 비교했을 때 비전문가들인 이중언어 사용자들은 긴 휴지를 남기는 특성을 보였다고 하였다. 피칼루카(Piccaluga, 2005: 154) 역시 전문 통역사와 이중언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동시통역 실험을 한 결과 이중언어 사용자들의 휴지가 유의하게 길었다고 보고하면서 전문통역사보다 부족한 언어능력과 경험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14년 자료의 문장당 발화율에서도 나타나 원문은 0.84, 통역은 0.7로 통역이 원문의 84%에 머물렀다. 2014년 자료에서의 TTS는 10.1초에 달해 2013년의 9.3초보다 더 길었으며 이는 전문통역사에 의한 영한 동시통역에서 TTS가 통상 5초 내외인 것(이태형, 2009: 171)보다 매우 긴 것이다. 이 TTS 변수는 통역자가 2014년 통역에서도 하나의 원문을 충실하게 통역하려고 상당히 긴 시간을 소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후속 원문의 이해가 중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긴 TTS를 가지는 것은 바로 해당 문장의 생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반복이 되었다.<sup>1)</sup> 전체적으로 볼 때 스튜디오에 출연하지 않은 상태로 동시통역을 수행한 2014년 자료에서 문장 내, 문장 간 휴지 통역/연사 비율이 약간 낮아진 것을 제외하고는 분당 음절 수 비율과 문장당 발화율이 내려갔으며 두 자료 모두 유사하게 긴 EVS와 TTS를 기록하였다. 즉 스튜디오 출연 동시통역이라는 비정상적인 환경의 제약에서 벗어났음에도 통역사 변수에서는 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전문가인 국제부 기자의 동시통역 수행에는 근본적인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4) 통역된 문장들의 원문 변수와의 관계

위에서 원문 전체와 통역된 한국어 문장들을 비교하였는데 보다 정확한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통역된 한국어 문장 38개와 이에 해당하는 영어 원문 38개만을 SPSS/PC 13.0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연사 문장당 음절 수는 35.2로 통역 문장당 음절 수 29.1보다 유의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 $t=2.997$ ,  $p=0.005$ ) 이 둘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0.57$ ,

1) TTS(tail-to-tail span)은 EVS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원문의 끝 부분과 해당 문장 통역의 끝 부분 사이의 시간을 말한다.

$p=0.000$ ). 연사 문장당 시간 9.8초와 통역 문장당 시간 9.6초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t=2.00$ ,  $p=0.084$ )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0.484$ ,  $p=0.002$ ). 연사 분당 발화 음절수는 248로 통역의 분당 발화 음절 수 205보다 유의하게 길었으며( $t=2.65$ ,  $p=0.012$ ) 이 두 변수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0.38$ ,  $p=0.018$ ). 이는 긴 EVS와 많은 문장들이 생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역된 문장끼리만 보았을 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통역이 원문 변수를 따라가야 하는 수동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이다. 연사 문장 간 휴지 1.18초보다 통역의 문장 간 휴지가 6.3초로 유의하게 길어( $t=-7.39$ ,  $p=0.000$ ) 통역자가 통역을 시작하기 전 연사보다 더 오래 발화를 멈추고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사 문장 내 휴지 1.8초 보다 통역 문장 내 휴지 3.4초가 유의하게 길어( $t=-3.09$ ,  $p=0.004$ ) 일단 변환된 내용을 발화하면서도 문장 내에서 연사보다 더 긴 휴지를 남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역의 문장 간 휴지 6.3초는 통역 문장 내 휴지 3.4초 보다 유의하게 길며( $t=-4.36$ ,  $p=0.000$ ) 이 두 변수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r=0.47$ ,  $p=0.003$ ) 오래 기다려 발화를 시작한 후에도 해당 문장 내에서 긴 휴지를 남겼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드리커(2003: 235)는 터키에서의 비전문가 TV 동시통역에서도 오역과 함께 긴 EVS, 비문, 긴 휴지를 그 특성으로 꼽고 있다.

EVS는 여러 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원문 음절 수( $r=0.39$ ,  $p=0.016$ ), 원문 시간( $r=0.38$ ,  $p=0.019$ ), 원문 문장 내 휴지( $r=0.42$ ,  $p=0.009$ )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원문 발화율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r=-0.41$ ,  $p=0.011$ ). 이들 원문 변수가 EVS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임을 볼 때 원문이 길어지면 EVS가 길어졌고 발화율이 높아지면 반대로 EVS가 짧아졌다. 그리고 이 EVS는 통역변수들과도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통역 문장 간 휴지( $r=0.36$ ,  $p=0.025$ ), 음절 비( $r=0.49$ ,  $p=0.002$ ), 시간 비( $r=0.46$ ,  $p=0.004$ ), 발화율 비( $r=0.51$ ,  $p=0.01$ ), TTS( $r=0.42$ ,  $p=0.01$ ) 등이었다. 이것은 EVS가 이들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통역 문장 간 휴지가 길어지면 EVS도 같이 길어지며 이것은 이어서 TTS를 길게 한 것이다.

전체 원문 62개 중 38개가 통역되고 24개가 생략되었으므로 혹시 생략된 영어 원문들의 시간적 변수가 통역된 원문들의 변수와 달라 통역 여부에 영

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하였다. 그러나 분석 결과 문장당 음절수와 문장 길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바 통역된 원문의 길이가 35 음절, 생략된 문장들의 길이가 25 음절( $t=2.89$ ,  $p=0.005$ )이었으며 문장당 길이의 경우 통역된 문장의 길이가 9.8초, 생략된 문장들의 길이가 6.6초( $t=2.89$ ,  $p=0.005$ )였다. 그 외의 원문 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이 통역이 진정한 의미의 동시통역이 아니라 간헐적 순차통역에 그친 관계로 원문의 변수와 관계없이 한 문장의 통역 이후 후속 원문들이 생략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5) 다중처리

이해와 발화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다중처리는 동시통역의 정보처리 과정 중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크리스토펠, 2006: 324; 머소-머서, 2010: 263). 체르노브(Chrenov, 1979:277)는 영어 러시아어 동시통역에서 통역사는 전체 시간의 평균 70.5%를 듣기와 말하기를 한꺼번에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거버(Gerver, 1975: 124)도 붙여 영어 동시통역 실험에서 전체 시간의 75%를 이해와 발화를 한꺼번에 수행하면서 85%가 넘는 정확도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중처리의 특성은 원문의 한 부분을 변환하여 발화하며 후속 정보를 청취 이해하는 과정이 한꺼번에 일어나므로 질(Gile, 2009: 168)의 지적처럼 하나의 정보가 아니라 여러 개의 연속적인 정보들이 동시통역의 각각의 처리 과정에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 분석결과 영어 원문의 입력과 발화가 겹치는 부분이 전체 600초 중 55초로 9.2%에 불과하여 영한 동시통역에서 전문 통역사가 전체 시간의 40%를 듣기와 말하기를 동시에 수행했다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이(Lee), 1999: 563). 그리고 이러한 다중처리 비율을 음절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 전체 1062음절 중 102음절을 다중처리 하여 9.6%의 다중 처리 비율을 보였다. 이 수치도 전문 통역사에 의한 영한 동시통역의 61%보다는 현저히 낮은 것이다(이, 1999: 563). 더구나 이중 실제 통역에 나타난 단어는 4단어로 전체의 0.3%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듣기와 발화가 겹치는 부분이 일부 있었지만, 이는 전문통역사들의 다중처리와는 달리 하나

의 정보를 이해한 후 통역하면서 이때 입력되는 후속 정보는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발화 중 입력된 정보는 대부분 통역에서 생략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발화를 중단한 채 듣기에만 집중한 부분에서도 많은 오류가 나타나 기본적 영어 청해 능력도 동시통역을 수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었다. 동시통역 시 통역사가 변환된 내용을 발화하며 입력되는 원문을 청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모니터는 하되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이 기자는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질(2009: 159)의 주장처럼 통역은 정보처리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며 이 제한적인 정보처리 능력을 효율적으로 각각의 과정에 자동화시켜 분배하지 않으면 과부하가 발생하여 통역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 기자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수차례 언급했듯이 동시통역 시 제한적인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을 듣기, 변환, 발화, 모니터와 그 외 많은 정보처리 하부 구조에 문제없이 분배해야 함에도 이 국제부 기자는 그 같은 처리를 하지 못하였다. 이는 질이 강조했듯이 통역 작업에는 항상 제한적인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이 동원되고 통역은 그 이상의 정보처리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이 기자의 경우 이러한 능력의 효율적 분배 문제보다는 근본적으로 정보처리 능력의 총합이 동시통역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여 초보적인 순차통역에 해당하는 간헐적 통역만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발견은 달린저(1994)의 주장과 대치되는 것으로 이해단계에 국한한다 하더라도 일반 이중언어 사용자가 입력되는 원문을 청해하며 발화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다중처리를 해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라 할 수 있다. 특히 달린저(1994)가 이중언어 사용자의 동시통역 전달률을 41%라고 보고한 것을 분석해보면 시간적 양상에 대한 자료가 보고된 바 없어 확신할 수는 없지만, 피험자인 이중언어 사용자들이 듣고 말하는 다중처리 없이 한 문장을 집중해서 듣고 이것을 발화한 후 다음 문장을 다시 듣는 이 논문의 기자와 유사한 행태를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전문 통역사들은 극도의 다중처리인 동시통역을 수행하면서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듣기 능력에 못 미치는 정보처리 역량으로 입력되는 자료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와 발화의 준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일상생

활에서도 빈번한 일이지만 이해와 발화를 한꺼번에 수행하는 것은 동시통역만의 고유한 특성이다(크리스토펠, 2006: 325). 그리고 이러한 정보처리는 별도의 노력을 많이 소비하지 않고 자동화되어야 한다는 점도 전문가 통역사들의 큰 특징이라 하겠다(야스켈라인, 2010: 220).

#### IV. 나가는 말

본 논문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영어 연설을 국내 모 TV 방송국의 국제부 기자가 영한 동시통역 한 것을 분석하였다. 먼저 문헌 연구에서 딜린저(1994)가 번역이나 통역이 이중언어 사용자들에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능력이라고 주장하며 롱글리(1978)를 인용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내었다. 다음으로 시간적 양상을 포함한 정량분석 결과 동일한 기자가 동시통역을 시도했던 2013년의 영어 원문 자료와 비교할 때 본 논문의 원문의 이독성이 높아진 것을 제외하고 휴지나 발화율 등의 시간적 변수, 연사 수, 그리고 주제 면에서도 난이도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통역과 마찬가지로 이번 통역도 간헐적 순차통역에 머물렀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자는 영어 원문의 이해 단계부터 어려움을 노정하였고 동시통역의 가장 큰 특성인 이해와 발화의 다중처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 기자는 발화를 중단한 상태에서 영어 문장 하나를 듣고 다음 단계에서는 듣기를 중단한 채 들은 문장을 한국어로 통역하고 다시 듣기만을 반복하는 매우 기형적인 형태의 통역을 생방송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EVS와 TTS도 두 자료 모두 거의 동일하게 전문통역사들과 비교하여 매우 긴 상태를 유지하여 원문 하나를 처리하는데 너무 긴 시간을 투자하며 후속 원문을 생략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딜린저(1994)가 발화를 제외한 원문의 이해 단계에서는 이중언어 사용자와 전문 통역사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보고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정보처리는 1963년 러시아의 심리학자 코치키나(Z. Kochkina(1963))가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은 한꺼번에 두 가지의 정보처리를 할 수 없고 동시통역은 실제로 동시가 아니라는 주장(체르노브, 2004: 11)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다. 더구나 국제부 기자였음에도 배경 지식과 사전 준비를 통한 입력원문의 원활

한 이해 과정보도 부족했다. 특히 이번 동시통역은 지난번 항공 사고와는 달리 미리 계획된 연설이었고 2년 전에 제2차 핵 안보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통역 준비 과정만 거쳤더라면 연설의 상당 부분을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특히 2013년 통역에서는 스튜디오에 기자가 위치한 관계로 정상적인 통역사의 작업 환경이 아니었으므로 통역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면책이 가능하였으나 본 연구의 경우 통역자가 스튜디오에 위치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로운 상황이었다. 결국 이 국제부 기자의 능력이 동시통역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결과는 통번역이 이중언어 사용자들이 가지는 생득적 기술이라는 이론이 최소한 영한 동시통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중언어 사용자라 하더라도 체계적인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영한 동시통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제부 기자가 영한 동시통역에 실패했다는 이 결과는 동시통역이 장기간에 걸친 훈련을 통하여 듣기와 말하기를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제한적인 정보처리능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습득해야만 가능하다는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은 먼저 통역자 자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제통역사 협회(AIIC)의 윤리규정 제3조(Article 3, Code of Professional Ethics)에 따르면 통역사는 자신이 감당해낼 수 있는 통역 업무만을 수주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한 인식 없이 두 번이나 이 같은 생방송 동시통역 실패를 하고 말았다. 다음 문제는 방송사의 동시통역에 대한 인식이나 통번역 인력에 대한 구조적 결함이다. 방송국 내에 통번역 업무를 수행할 인력풀이 없는 경우가 79% 달한다는 연구(김은영, 2014: 49)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원인을 잘 보여준다. 특히 지난번 스튜디오 동시통역 시 실시간 모니터나 방송 후 사후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다시 생방송 동시통역을 동일 인물에게 맡겼고 부실한 동시통역이 진행되는 중에도 이를 중지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1991년 걸프전 때도 초기에 국제부 기자들이 투입되었고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인 기자 역시 국제부 소속으로 2013년과 2014년 2년에 걸쳐 이러한

도전을 하였다는 것은 특기할 사안이다. 이는 국제부 기자들이 자신들의 외국어 능력을 곧 동시통역 능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배경에는 국내에서 외국어 능력을 지적 능력의 지표 중 하나로 보고 특히 동시통역을 해당 외국어 능력의 최고의 경지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번 통역 건은 언론이나 인터넷상에서도 한두 개의 댓글 외에는 크게 문제 되지 않고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방송을 영한 동시통역을 통해 시청한 국민은 반 총장이 전하려던 메시지는 전혀 전달받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된 정보만을 전달받고 말았다. 이것은 차라리 동시통역 없이 영어 원문을 생중계한 것보다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겐비에(Gambier, 2006: 15)가 지적한 것처럼 국제회의에 참석해서 동시통역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일반 시청자들이 이러한 비전문가의 생방송 동시통역을 시청할 경우 이 통역이 생애 최초의 통역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전문가에 의한 동시통역은 영한 동시통역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방송사의 사전 사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비전문가들이 동시통역을 맡지 않도록 하여 TV 동시통역에 대한 신뢰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은영. (2014). 「방송사 통·번역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일어일문학』, 58, 45-55.
- 이태형. (2014). 「비전문가에 의한 스튜디오 생방송 동시통역」. 『통역과 번역』, 16(3), 147-167.
- 이태형. (2009). 「영한 동시통역의 문장 전후 시차 비교」. 『통역과 번역』, 11(2), 163-181.
- Chiaro, D. (2002). Linguistic mediation on Italian television. When the interpreter is not an interpreter: A case study. In G. Garzone & M. Viezzi (Eds.), *Interpreting in the 21st Century: Challenges and*

- Opportunities* (pp. 215-228). Amsterdam: John Benjamins.
- Chernov, G. V. (2004). *Inference and Anticipation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A Probability-Prediction Mode*. Amsterdam: John Benjamins.
- Chernov, G. V. (1979). Semantic aspects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Language and Speech*, 22(3), 277-295.
- Christoffels, I. K., De Groot, A. M., & Kroll, J. F. (2006). Memory and language skills in simultaneous interpreters: The role of expertise and language proficiency.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54(3), 324-345.
- Dillinger, M. (1994). Comprehension during interpreting: What do interpreters know that bilinguals don't. In S. Lambert & B. Moser-Mercer (Eds.), *Bridging the Gap: Empirical Research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pp. 155-189). Amsterdam: John Benjamins.
- Diriker, E. (2003). Simultaneous conference interpreting in the Turkish printed and electronic media 1988 - 2003.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2, 231-243.
- Ericsson, K. A. (2010). Expertise in interpreting: An expert-performance perspective. In M. Shreve & E. Angelone (Eds.), *Translation and Cognition* (pp. 231-262). Amsterdam: John Benjamins.
- Gambier, Y. (2006). Transformations in international news. In K. Conway & S. Bassnett (Eds.), *Translation in Global News –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23 June 2006. Coventry: University of Warwick, Centre for Translation and Comparative Cultural Studies.
- Gerver, D. (1975). A psychological approach to simultaneous interpretation. *Meta* 20(2), 119-128.
- Gile, D. (2009).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Revised Edi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 Harris, B., & Sherwood, B. (1978). Translating as an innate skill. In D,

- Gerver & H. W. Sinaiko (Eds.), *Language Interpretation and Communication* (pp. 155-170). New York: Plenum Press.
- Jääskeläinen, R. (2010). Are all professionals experts? Definitions of expertise and reinterpretation of research evidence. In G. Shreve & E. Angelone (Eds.), *Translation and Cognition* (pp. 213 - 227). Amsterdam: John Benjamins.
- Jääskeläinen, R. (2003). Who said what? A pilot study of the hosts' interpreting performance on Finnish breakfast television. *The Translator*, 9(2), 307-323.
- Köpke, B., & Signorelli, M. (2012). Methodological aspects of working memory assessment in simultaneous interpret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ism*, 16(2), 183-197.
- Kurz, I. (2003). Physiological stress during simultaneous interpreting: a comparison of experts and novices.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2, 51-67.
- Kurz, I. (1990). Overcoming language barriers in European television. In D. Bowen & M. Bowen (Eds.), *Interpreting—Yesterday, Today, and Tomorrow* (pp. 168-175). Amsterdam: John Benjamins.
- Kwak, J. (2007). A case study of U.S. presidential crisis rhetoric in the two attacks on Iraq. *Language and Linguistics*, 39, 17-35.
- Lee, T. (1999). Simultaneous listening and speaking in English into Korea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Meta*, 44(4), 560-572.
- Liu, M. (2001). *Expertise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A Working Memory Analys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Austin, USA.
- Longley, P. (1978). An integrated programme for training interpreters. In D. Gerver & H. W. Sinaiko (Eds.), *Language Interpretation and Communication* (pp. 45-56). New York: Plenum Press.
- Mack, G. (2002). New perspectives and challenges for interpretation: The example of television. In G. Garzone & M. Viezzi (Eds.),

- Interpreting in the 21<sup>st</sup> Centur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p. 203–213). Amsterdam: John Benjamins.
- Mack, G. (2001). Conference interpreters on the air: Live simultaneous interpreting on Italian television. In Y. Gambier & H. Gottlieb (Eds.), *(Multi)Media Translation. Concepts, Practices and Research* (pp. 125–132). Amsterdam: John Benjamins.
- Moser-Mercer, B. (2010). The search for neuro-physiological correlates of expertise in interpreting. In M. Shreve & E. Angelone (Eds.), *Translation and Cognition* (pp. 263–288). Amsterdam: John Benjamins.
- Moser-Mercer, B., Frauenfelder, U. H., Casado, B., & Kunzli, A. (2000). Searching to define expertise in interpreting. In B. Englund-Dimitrova & K. Hyltenstam (Eds.), *Language Processing and Simultaneous Interpreting: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pp.107–131). Amsterdam: John Benjamins.
- Piccalagua, M., Nespoulous, J., & Harmegnies, B. (2005). *Disfluences as a Window on Cognitive Processing. An Analysis of Silent Pauses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In proceedings of DiSS'05, disfluency in spontaneous speech workshop. Aix-en-Provence, France.
- Pöchhacker, F. (2011). Researching TV interpreting: Selected studies of US presidential material.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6, 21–36.
- Signorelli, T. M., Haarmann, H. J., & Obler, L. K. (2011). Working memory in simultaneous interpreters: Effects of task and ag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ism*, 16, 198 - 212.
- Sunnari, M. (1995). Processing strategies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Saying it all' vs. synthesis. In J. Tammola (Ed.), *Topics in Interpreting Research* (pp. 109–119). Turku: Center for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University of Turku Press.
- Tissi, B. (2000). Silent pauses and disfluencies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 descriptive analysis.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0, 103–127.

- Tzou, Y. Z., Eslami, Z. R., Chen, H. C., & Vaid, J. (2011). Effect of language proficiency and degree of formal training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on working memory and interpreting performance: Evidence from Mandarin - English speak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ism*, 16(2), 213-227.
- Yudes, C., Macizo, P., & Bajo, T. (2012). Coordinating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in simultaneous interpreters: Evidence from the articulatory suppression effect. *Bilingualism: Language and Cognition*, 15(2), 329-339.

<인터넷 자료>

- Christoffels, I. K. (2004). Cognitive studies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Retrieved May 1, 2015, from <http://dare.uva.nl/document/2/51225>

이름: 이태형

소속: 한양대학교 영미언어문화학과

우편번호/주소: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교 55

E-mail: tlee@hanyang.ac.kr

논문투고일: 2015년 10월 9일

심사완료일: 2015년 11월 25일

게재확정일: 2015년 11월 26일